

2011. 6. 17.

보도자료

이 자료는 6월 20일(월) 오전9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KDI 홍보팀

TEL 02) 958-4030 FAX 02) 960-0652 E-mail press@kdi.re.kr

※ 이 자료는 지식경제부, 환경부 기자단에도 동시 배포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 「지구 책임적 문명 건설」

Global Green Growth Summit 2011
“Building Planet-Responsible Civilization”

- 일 시: 2011년 6월 20일(월) ~ 21일(화)
- 장 소: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2층)
- 주 최: 대한민국 정부, OECD
- 주 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S),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한국개발연구원(KDI)

- 정부는 OECD와 공동으로 6월 20, 21일 양일간 OECD 창립 50주년과 한국의 OECD 가입 15주년, 국제사회의 깊은 관심 속에 탄생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설립 1주년을 기념해 「지구 책임적 문명 건설」 주제의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을 개최함.
- 이명박 정부가 주창, 선도해 온 녹색성장은 자연 자원의 제한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기후 변화와 산업 발전에 따른 환경 황폐화의 제약조건 하에서 미래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과 발전을 모색하는 새로운 전략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음.

-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정책적 도입을 통해 지속성장을 가능케 할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경제기회와 변화를 창출할 수 있음.
- 2010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한국은 2008년 세계 최초로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주창,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기반한 많은 활동을 통해 녹색성장의 글로벌 리더이자 롤모델로 확고히 자리잡았음.
-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은 OECD는 녹색성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 연구와 집행의 중심적인 사항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하에 한국 정부와 다양한 녹색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서밋에서는 녹색성장의 개념을 더욱 정교화, 확장하고, 세계 각국의 실정에 적합한 녹색성장 정책 패러다임의 설정과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을 모색
- 특히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정보혁명을 통해 인류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비전 아래, 대지진 이후 일본의 회복을 선도적으로 지원해 왔다”며,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시키는 신재생에너지위원회 설립을 통해 일본 에너지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한 경험을 소개함.
- 2011년 6월 13일까지 47개의 시지역 중 33개 지역이 신재생에너지위원회에 참가 신청했으며, 일본 의회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세제혜택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안을 논의하는 등 대지진 이후 녹색성장에 관한 일본 사회의 관심도가 크게 증가했음.

□ 양행 구리아 OECD사무총장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들과 세계 각국의 고위 공무원, 니콜라스 스톤 런던 정경대 교수 등의 석학을 비롯해 세계적인 녹색기업가 스정룡 썬텍 회장,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등 9 여 명의 발표자와 패널토론자를 비롯해 8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사전등록인단이 참가할 이번 서밋은 동북아는 물론 글로벌 차원의 녹색성장 협의체, '녹색 분야의 다보스 포럼'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문의: 강승룡 KDI 홍보팀장 9 58-4035

- ▶ 첨부#1. 글로벌녹색성장서밋2011 프로그램
- ▶ 첨부#2. 세션별 주요 논의 사항 요약
- ▶ 첨부#3. 주요 참석자 약력
- ▶ 첨부#4. 언론 참고사항

첨부#1. 글로벌녹색성장서밋2011 프로그램

지구 책임적 문명 건설

2011년 6월 20일(월)

개회행사

- 09:00~09:50 **환영사**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영상메시지 반기문, UN 사무총장(영상메시지)
개회사 “지구의 미래와 녹색성장”
축사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바라드 자그데오, 가이아나 대통령
기조연설 한승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이사회 의장
니콜라스 스텐, 런던 정경대 교수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스정룡, 썬텍 회장
- 09:50~10:00 **휴식**

세션 1. 지구 책임적 문명 건설

- 10:00~11:00 **Part 1. 녹색성장을 향한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기조연설 니콜라스 스텐, 런던 정경대 교수
발표자
놀린 헤이저, UN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 사무총장
정진승, APEC 기후센터 소장
트레버 마뉴엘,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기획위원장
리케 프리스, 덴마크 기후에너지부장관
아메드 나심, 몰디브 외교부장관
잉거 앤더슨, 세계은행 부총재
- 11:10~12:30 **Part 2. OECD 녹색성장 전략**
사회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보고 나탈리 기로워드, OECD 녹색성장 팀장
패널토론
압둘 자네, UN아프리카경제위원회 사무총장
몬텍 알루왈리아, 인도 국가발전위원회 부위원장
고미야마 히로시, 일본 미쓰비시종합연구소 소장(前 동경대 총장)
로버트 힐, 호주 저탄소 대표
오르겐 클라우젠, 덴포스 회장
리차드 새먼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소장
- 12:30~14:00 **오찬**

세션 2.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 거버넌스: Rio+20 회의와 그 이후

14:00~15:50 **사회** 루이 알폰소 데 알바, 멕시코 기후변화 대사

발표 압둘 자네, UN아프리카경제위원회 사무총장
안젤라 크라퍼, UNEP 사무총장 특별보좌관

패널토론

베니 앨런, 파푸아뉴기니 환경부 장관
우르슬라 샤페 프레우스,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
이지순, 서울대학교 교수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자문위원
헬렌 마운트포드, OECD 환경국 부국장

분과세션. 지구책임적 녹색성장을 위한 과학 기술

14:00~15:50 **사회** 얀-안데스 맨슨, 스위스 로잔연방공과대학교 교수

발표

정성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前 원장)
제임스 로베르토, 미국 오크리지국립연구소 본부장
이상엽, KAIST 학장 및 특훈교수
페터르 노우, 스웨덴 기술혁신청(VINNOVA) 프로그램매니저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패널토론

폴 홀터스, 세계해양협회 사무국장
이지화, 서울대학교 교수
더크 필라, OECD 과학 및 기술정책 사업부 과장

세션 3.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새로운 협력 체계

16:20~18:00 **사회** 리차드 새먼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소장

발표

라치맛 위톨라, 인도네시아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의장
우르슬라 샤페 프레우스,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

패널토론

자노스 파스토, UN 기후변화지원팀장
마리오 페치니, OECD 지역개발센터 소장
정래권, UN 아·태경제사회위원회 환경국장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자문위원
제레미 오픈하임, 매킨지앤컴퍼니 기후변화대책 총괄디렉터

분과세션. 2011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라운드테이블

16:20~18:00 **Part 1. 녹색성장에 관한 각국의 경험 공유**

사회 야닉 글레마렉, UNDP 환경금융국 국장

발표

목 마레트, 캄보디아 환경부 장관

루실 세링, 필리핀 기후변화위원회 부위원장

페힌 다토 Hj 수요이 하지 오스만 브루나이 개발부 장관

주마무라드 사파르무라도프 투르크메니스탄 자연보호부 차관

토론

컬샌드 다블라토프 타지키스탄 자연보호부 부위원장

바트볼드 도르즈커렘 몽골 자연환경관광부 국장

Part 2. 아시아 지역 녹색성장 이행

사회 손성환 외교통상부 기후변화 대사

발표

야닉 글레마렉 UNDP 환경금융국 국장

루 톡 지 말레이시아 에너지, 녹색기술, 수자원부 차관보

몬텍 알루왈리아 인도 국가발전위원회 부위원장

묘 르윈 주한 미얀마 대사

토론

쿄방 아 플라 라오스 메콩강 소지역 개발사업국장

헬렌 마운트포드 OECD 환경부 부국장

콩 삼 눈 캄보디아 환경부 차관

다르마푸트라 가푸르 인도네시아 경제환경 개발국장

18:30~20:00 **만찬**

한국과 OECD: 새로운 파트너십과 리더십

2011년 6월 21일(화)

개회 행사

09:00~09:30 **개회/환영사** 김중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축사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기조연설 이경태 한국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Press Moment -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 보고서』

09:30~10:00 **발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세션 1. 한국경제의 미래 비전 모색

10:00~12:00 **공동사회** 현오석, KDI 원장
마르쿠스 봉뚜리, OECD 사무총장 비서실 차장

발표

서중해, KDI 연구위원
랜달 존스, OECD 경제국 한국담당 선임이코노미스트
마크 키즈, OECD 고용노동사회국 과장

패널토론

테보라 로스비어, OECD 교육국 과장
리엘 밀러, Xperidox 대표 및 프랑스 시앙스포 교수
강호인, 기획재정부 차관보
박하정,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12:00~14:00 **오찬**

세션 2. G20와 글로벌 거버넌스

14:00~15:50 **사회** 이시형,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발표

필립 띠에보, 前 주한 프랑스대사
니시미야 신이치, 일본 G20사전교섭대표 겸 외무성 차관보
이종화, 한국 G20 세르파 겸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
콜린 브래드포드, 부르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패널토론

베르너 푸쉬라, 독일 프리드리히 에바르트 재단 뉴욕사무소 소장
허경욱, 주 OECD 대사
채 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이동휘,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분과세션.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본 녹색성장

14:00~15:50 **사회** 이장무, 기후변화센터 이사장(前 서울대 총장)

발표

에릭 라스무센, 녹색성장지도자기구(Green Growth Leaders) 대표
장-폴 퍼텍, 세계자연보호기금 네트워크 추진지원팀 팀장
제니퍼 하버캠프, 환경방어기금 국제기후정책부 부장
지영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패널토론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우기종, 녹색성장위원회 단장

세션 3. 보다 나은 개발 협력을 위하여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HLF-4), G20, MDGs

16:00~17:30 **사회** 조태열, 외교통상부 개발협력 대사

발표

스테판 그로프, OECD 개발국 부국장
야닉 클레마렉, UNDP 환경금융국 국장
박은하,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 국장

패널토론

윤태용,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장
정태용, GGGI 부소장
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마리오 페치니, OECD 지역개발센터 소장

폐막세션. 지구책임적 문명을 위한 글로벌 협력

17:30~18:00 **Summary Remarks**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 비서관

폐막사

허경욱 OECD 대사
리처드 새먼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소장
마리오 페치니, OECD 지역개발센터 소장

첨부#2. 세션별 주요 논의 사항 요약

6월 20일(월), 서밋 첫날

세션 1. 지구 책임적 문명 건설

1부. 녹색성장을 향한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 환경의 황폐화, 대기과 기후의 변화, 급속한 인구의 증가, 지구의 제한된 자원에 대한 감당하기 어려운 소비 등 현재 인류에게 닥친 커다란 도전에 대해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할 것임.
- 양적인 발전에서 질적인 발전으로의 전환을, 과거의 화석 의존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발전 구조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녹색성장 패러다임은 새로운 글로벌 경제 성장 전략으로서 이러한 도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임.
-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주창 이후 녹색성장은 세계 각국으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번영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서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도입하고 있음.
 -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혁신성은 인류와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한 개개인의 환경 친화적 인식과 선택을 가능케 한다는 데 있음.
- 본 세션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망라한 세계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 공공기관, 민간단체의 핵심 연사들이 대거 참여해 새로운 세계의 발전 전략으로서 녹색성장 패러다임이 갖는 가능성과 비전에 대해 논의할 것임.

2부. OECD 녹색성장 전략

- 본 세션에서는 OECD의 『녹색성장을 향한 녹색성장전략』 보고서와 동반 출판물인 『녹색성장을 향하여 - 모니터링의 진보: OECD의 지표』를 중심으로 압둘 자네 UN아프리카경제위원회 사무총장, 오르젠 클라우젠 댄포스 회장, 고미야마 히로시 미쯔비시종합연구소 소장 등이 참여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 2009년 6월의 OECD 각료 회의 모임에서 34개 국가 장관들은 녹색성장 선언에 서명하고 “위기와 그 이후의 대응 방안으로서 녹색성장 전략을 강화하고 ‘녹색’과 ‘성장’은 함께 갈 수 있다”라고 선언한 바 있음.
- OECD의 선언은 경제, 환경, 사회, 기술 부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틀에서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타당성을 긍정, 지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향후 OECD는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실효적 구체화를 위해 UN단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의 선도적 연구소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 정부 및 시민사회 지도자들과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

세션 II.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 거버넌스 - Rio+20 회의와 그 이후

□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 설립 20주년과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정상 회의 개최 10주년을 기념해 2012년 6월 개최될 Rio+20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치적 노력 확보,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주요 정상회담의 진행상황과 향후 과제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임.

□ Rio+20의 주요 이슈

- ① 지속 가능한 개발과 빈곤 퇴치를 위한 녹색 경제
- ②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제도적 틀

□ 녹색경제와 녹색성장은 외부효과의 내부화와 인적자원, 사회적 자원, 천연자원의 균등한 투자에 기반한 기존 경제 모델의 제도적 실패와 시장을 수정하는 통로로 인식되고 있음.

○ 녹색경제는 일견 상당한 괴리를 갖는 것으로 보이는 경제성장과 환경에 대한 책무를 극복하게 할 효과적인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음.

○ 그러나, 녹색경제는 보호 무역 조치 또는 투자와 원조에 대한 새로운 조건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전용될 수 있는 측면을 가짐.

□ 본 세션에서는 Rio+20 준비과정에서 요구되는 국제적인 협력 과제와 이를 실현할 제도적 틀을 모색함.

분과세션. 지구 책임적 녹색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정책 패러다임으로서 녹색성장을 도입함에 있어 녹색 기술의 개발과 확산은 '녹색'과 '성장'의 실효적 접합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토대임.

□ 녹색 기술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 정책 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정책까지 폭넓게 포괄하는 정부 정책 방향의 혁신적인 재설정이 필요

- 이를 위해 글로벌 차원의 협력은 필수적이나 국가별 산업 발전 단계 및 사회 구조와의 유기적 연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대학을 비롯한 공공 연구기관은 녹색 기술의 핵심 문제를 식별하는데 필요한 과학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야 함.
- 특히 에너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추구하는 동시에 탄소 배출량을 관리해야 할 것임.
- 또한 석유 화학의 대응방안으로 미래에 매력적인 가능성을 제공하는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집중이 필요함.

세션 III.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새로운 협력체계

- 2010년 6월 설립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는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개발도상국, 주요 관련 기관,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협력에 기반해 국가 간 녹색성장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녹색성장 전략을 지원
- 정부의 주도로 설립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는 2010년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에서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2011년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더 많은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맺을 예정임.
- 본 세션에서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연구소 설립의 의의와 비전을 재검토하고,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녹색성장에 관한 최고의 글로벌 연구소도 도약하기 위한 향후 발전과제를 모색할 예정임.

분과회의: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라운드테이블

-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파괴가 심화하면서 초미의 글로벌 의제로 부각된 기후변화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환경지속성을 조화시킬 경제구조의 전반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됨.
-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7월 G8 서밋에서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을 공표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안으로서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아시아 국가들 간의 소통 확대, 협력 방안 모색 필요성을 천명하고 아시아 각 국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음.
- 라운드테이블은 각국의 녹색성장정책 경험을 교환하는 플랫폼으로 향후 GGGI가 주최하는 글로벌수준의 포럼으로 확장될 예정임.

세션 1. 한국경제의 미래 비전 모색

- 한국은 경제 발전과 민주적인 사회 시스템의 정착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국제적 롤모델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신속한 극복 과정에서 다시금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 바 있음.
 - 그러나 발전 과정에서 야기된 양극화, 고령화 및 비효율적 교육 시스템을 비롯해 대북 관련 이슈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가 산적해 있음.
- 본 세션에서는 OECD, World Bank를 비롯한 국제기구 인사들을 포함한 국내외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에 관한 대내외의 전망을 상호 비교하고 편견 없는 정책 수립을 위한 국제 공동 연구 증진 방안을 모색함.
 - 구체적으로 ①한국 전문가들이 최근 수행한 한국의 미래 전망의 실체, ②OECD 한국 전문가들이 수행한 한국의 성장 잠재력과 거시 경제 안정성에 대한 분석, ③OECD의 신규 보고서인 『Social Policy Brochure』에 수록된 한국의 사회적 결합과 불균형 등의 사회 정책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세션 II. G20과 글로벌 거버넌스

□ G20은 1930년대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2010년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IMF의 할당량과 지배구조 개혁을 달성, 2011년에는 프랑스 대통령 주최로 세계 금융 기관의 개혁과 금융 위기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을 지속할 예정임.

□ 세계 경제의 안정과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세계화 국면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G20의 새로운 의장국인 프랑스는 국제 경제 협력을 위한 최고의 포럼인 G20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네 가지 분야의 과제를 제안했음.

1. UN 안전 보장 이사회 개혁

- 2차 대전의 종료 시 설정된 안정보장이사회 회원 수를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회원 증가의 효과를 학습할 수 있는 개혁 기간이 필요함.

2. 세계를 향해 G20 개방하기

- G20를 전 세계에 개방하고 G20의 결정들을 국제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공유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정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G20 회원국 간은 물론 비회원국과의 관계를 심화, 모든 대륙의 지역 기구와 의사소통을 확대해야 할 것임.

3. 단기적 개혁 가능 분야에 우선적으로 집중

- G20은 FAO를 포함한 국제기구에 대한 개혁을 가속화해야 하며, 특히 환경 분야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행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4. G20 자체의 실질적 강화 조치

- G20의 의장들로만 구성된 G20정상회의는 정치적인 자극제는 될 수 있지만 그 기능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음.

-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선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결정의 액션플랜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G20 통합을 위해 G20의 통솔 기능을 지원하는 영구적인 사무국을 설치함으로써 보다 큰 내적 일관성과 실질적인 조치들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임.

분과세션. 시민사회의 관점에 본 녹색성장

□ OECD와 덴마크 정부를 포함한 수많은 정부와 국제기구가 미래를 위한 비전으로 녹색성장을 채택하고 있는 현 추세는 부정적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새로운 경제성장에 대한 희망을 방증함.

□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효과적인 정책 구현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외에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수적임.

□ 정부와 민간부문 간의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면밀히 모색해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중심에 둔 사회 각 부문의 효과적인 협력체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임.

세션Ⅲ. 보다 나은 개발 협력을 위하여

-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는 ‘다함께 성장하기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와 ‘다년간 개발행동계획’을 채택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주요의제로서 개발을 부각시키고 실현하는 데 있어 역량배양을 통한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기여함.

- 올해 11월말 부산에서 개최되는 ‘The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은 원조효과 중심의 기존 논의를 넘어 폭넓은 개발 효과 문제를 다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작년의 ‘High-Level Plenary Meeting on the MDGs’는 새천년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
 -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국제사회의 개발에 있어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고, 개발을 위한 글로벌 모멘텀을 구축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개발 협력에 관한 MDGs, G20과 HLF4 등의 접근법과 전략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개발협력 체재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첨부#3. 주요 참석자 약력



양헬 구리아(Jose Angel Gurría Trevin), OECD 사무총장

양헬 구리아 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OECD에 취임하기 전까지 멕시코 외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공직에 종사하여 왔다. 2006년 취임 이후 사무총장은 경제정책에 관한 세계 소통과 토론에 중심으로서의 OECD의 역할을 강조하며 각 나라의 현대화와 개혁을 위해 힘썼다. 그의 리더십 아래,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등이 OECD에 합류했으며 브라질, 인도, 중국 등의 주요 개발도상국과의 관계도 증진되었다. 구리아는 미국 인구협회, 국제개발센터 등 비영리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자이자 국제지배구조혁신센터의 이사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니콜라스 스텐(Nicholas Stern) 교수

니콜라스 스텐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 교수는 경제와 정치를 강의하고 있으며 LSE의 아시아 연구 센터에서 인도 전망팀을 이끌고 있다. 스텐 경은 1994년까지 옥스포드, 워릭, MIT 등 대학교에서 경제개발과 성장, 세금개혁 등에 관련된 연구활동에 전념하였다. 그 후에는 영국 재무부 국제고문으로써 기상 변화와 개발의 경제를 자문하며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부총재를 역임했다. 그의 최근 저서로는 2005년 발간된 기후변화의 경제학과, 2006년 발간된 기후변화에 관한 스텐 리뷰가 있다.



리처드 새먼스(Richard Samans) 현 GGGI 소장

리처드 새먼스 현 GGGI 소장은 임명 전까지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의 부회장으로써 관민 파트너십 계획과 포럼과 정부, 국제단체와의 관계 등을 책임지고 있었다. 2001년 포럼 부임 이전 새먼스 소장은 미국 백악관 국제경제정책 대통령 특별보좌관과 미국경쟁력정책위원회 부국장, 국제관계위원회 위원등을 지내며 국제무역과 금융정책에 관한 클린턴 전 미대통령을 보좌했습니다. 96년에서 98년까지 사만스 소장은 상원 민주당 대표 토마스 대술 경제정책자문관을 역임하였으며 그 전에도 다양한 정부, 민간, 연구 기관에서 활약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의 회장은 일본 규슈에서 태어난 재일교포 3세로써 다국적 인터넷 기업인 소프트뱅크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이다. 그는 대학 재학 중 일명 번역장치를 포함250여건의 발명품을 개발하였으며 81년 소프트웨어 유통업체이자 IT 투자업체인 소프트뱅크를 설립하였다. 그는 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나스닥 재판을 설립하였으며, 각종 인터넷 관련 사업을 이끌고 있다. 그는 1999년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200대 부호 가운데 53위 (64억 달러)를 했으며, 같은 해 《비즈니스위크》의 아시아 스타 50인, 인터넷 시대를 주도하는 25인에 선정되었다. 또한, 2000년에는 《포브스》의 올해의 비즈니스맨으로 선정된 바 있다.



스정룽(Zhengrong Shi) 썬텍 파워 회장

스정룽 회장은 태양광 모듈 판매 회사인 썬텍파워홀딩스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이다. 스정룽 회장은 88년 박사학위 취득 후 후세대의 박막 기술 상업화를 전문으로 하는 호주의 에너지 회사 퍼시픽 솔라에 이사로 취업해 있던 중 2001년 중국으로 돌아와 썬텍을 창업하였다. 썬텍은 2002년 첫 번째 건전지 생산라인을 세운 후 성장을 거듭, 2005년 중국기업 최초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고 2011년 분야 1위를 기록하는 기업을 토했다. 스정룽 회장은 태양에너지전지기술 발명 특허권 10여개를 보유하고 있다.

□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한국경제학회, EU학회, EUSA Asia-Pacific(2001~04) 등의 회장을 역임했다. 한국과 유럽 간 학문적 관계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프랑스 정부 훈장을 받았다(1990).

□ 현오석 KDI 원장

한국의 대표적 Think thank인 KDI 원장으로 경제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G20서밋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정진승 APEC 기후센터 소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을 지냈다. 1998~1999년 제3대 환경부 차관을 역임하였고, 2003년 제10대 한국환경경제학회 회장을 지냈다. 또한 1999년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 리케 프리스 덴마크 기후에너지부장관

덴마크 정부의 기후에너지 및 양성평등 장관으로 덴마크 정부의 '에너지 전략 2050'을 세워 2050년까지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장관을 역임하기 이전에 코펜하겐 대학에서 부총장을 맡은 바 있다.

□ 나탈리 기로워드 OECD 녹색성장 팀장

OECD 녹색성장전략 팀장으로 녹색성장에 관련한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관리하며 책임지고 있다. OECD에 근무하기 이전 Research Department of the Bank of Canada에서 재직한 바 있다.

□ 고미야마 히로시 일본 미쓰비시종합연구소 소장

도쿄 대학 총장 시절 '도쿄 대학 액션 플랜'을 발표하고 다양한 개혁을 통해 학술 통합화를 진행시켰다. 총장 퇴임 이후 미쓰비시 종합연구소 이사장으로 취임해 공학관련 문제 대책 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다.

□ 로버트 힐 호주 저탄소 대표

Queensland 대학의 썩크탱크인 글로벌체인지 연구소의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1981년부터 2006년까지 호주 상원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010년 Adelaide University의 총장으로 임명되었다.

□ 우르술라 샤피 프레우스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

지속가능한 개발 담당 부총재를 맡고 있으며, 경제연구조사국의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독일정부의 재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에 대한 개발정책을 관리했다.

□ 헬렌 마운트포드 OECD 환경국 부국장

2010년부터 OECD 환경국의 부국장을 맡고 있으며, 2006~2010년까지 기후변화과장을 지낸바 있다. OECD에 재직하기 전 영국의 리사이클링회사와 호주의 환경 NGO에서 활동했다.

□ 랜달 존스 OECD 한국 담당 선임이코노미스트

2002년부터 한국과 일본 담당 선임이코노미스트로 활약하고 있다. OECD에 재직하는 동안, 아시아의 경제 및 금융의 재편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저술하였으며, 한국의 1970년대의 생활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30번 이상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첨부#4. 언론 참고사항

1. OECD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MOU 체결식

- 일시: 6월 20일(월) 오전10시20분~30분
- 장소: 프레스룸(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 3층)
- 대상: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허경욱 주 OECD 대사

2. 공식 기자회견

□ 1차

- 일시: 6월 20일(월) 오전10시30분~45분
- 장소: 프레스룸(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 3층)
- 대상: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현오석 KDI 원장, 허경욱 주 OECD 대사

□ 2차

- 일시: 6월 20일(월) 오전10시45분~11시
- 장소: 프레스룸(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 3층)
- 대상: 리처드 새먼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소장, 한승수 글로벌녹색성장
연구소(GGGI) 이사회 의장, 정태용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부소장

3. PRESS MOMENT

- 일시: 6월 21일(화) 오전9시30분~10시
- 장소: 프레스룸(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 3층)
- 내용: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 보고서』 소개 및 Q&A
- 참석: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외

4. 현장 참고자료 배포 일정

- 1) 세션별 요약 자료
 - 매 세션 종료 이후 1시간 이내 배포
- 2) PRESS MOMENT 자료
 - 일시: 6월 21일(화) 오전9시